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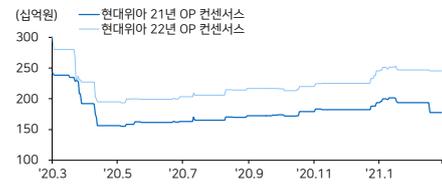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車 생산·내수·수출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 '날았다'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생산·내수·수출이 4년여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액은 2개월 연속 40% 이상 증가해 2014년 이후 역대 2월 최고를 경신. 특히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이 7억달러(전년동기대비 +123.8%)로 급증했다. <https://bit.ly/3tn85AQ>

기아, 2월 토요타 제치고 베트남 2위...현대차·기아 점유율 30% (THE GURU)

기아가 지난달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토요타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1위인 현대차와 함께 현지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등 베트남 시장을 주도하는 중. <http://bit.ly/20E6Yho>

쏘나타 부진에 일주일 멈춘 현대차 아산공장 '재가동' (한국경제)

현대차는 최근 판매부진에 빠진 쏘나타 재고 관리를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영업일 기준 5일간 아산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으나, 15일 아산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재개했다고 공시함. <http://bit.ly/38G2UUI>

'아이오닉5로 생활가전 10일 사용'...전기차 배터리 활용도 높아진다 (브릿지경제)

전기차 배터리를 생활용 전기를 일시 공급하는 배터리 공유경제가 부상 중. 향후 배터리 성능이 더욱 높아지면서, 배터리 구동경 제 등 새로운 모델 확산에 따른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에너지 변환체의 전기차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http://bit.ly/3eF124T>

폭스바겐, 2030년까지 배터리 공장 6곳 설립...한국산 줄인다 (조선비즈)

15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은 최초로 '파워 데이(Power Day)'를 열고 2030년까지 배터리 및 충전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 중 80%에 새로운 각종 배터리셀을 도입할 예정. <http://bit.ly/3vrdVTL>

매일 빛은 전기차 '기아 EV6'...타이거 노즈'도 이렇게 진화했다 (매일경제)

기아는 15일 첫 전용 전기차 EV6의 내·외장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함. 기아는 이달 말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통해 EV6 실물을 선보인 뒤 온라인 사진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 <https://bit.ly/3jtDeN>

대세 떠오른 전기차...테슬라·현대차-기아 이전 충전소 경쟁 (한국경제TV)

올해부터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들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경쟁이 심화될 예정.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작년 말까지 전국 총 100여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으며 테슬라는 올해 27곳, 현대차는 120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 <http://bit.ly/38GtKpl>

Tesla has a 'Heavy Trucking' division and it named J. Guillen as President (Teslarati)

Tesla has named Guillen as the President of its Heavy Trucking division, which seems that the automaker is taking an approach that is hinting toward the imminent arrival of the Semi. <http://bit.ly/20S6G6u>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